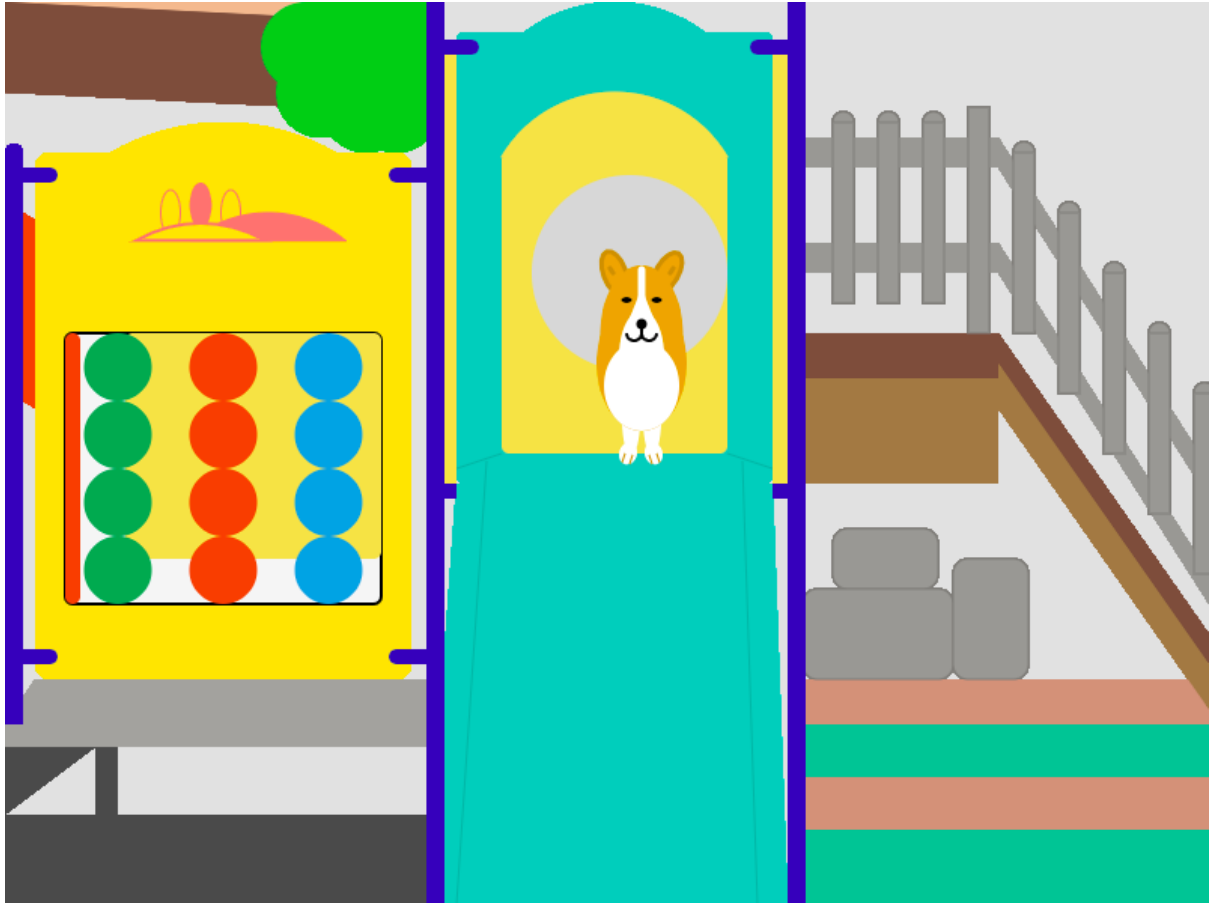


# 과제(due 4/21) photo





제 친구네 웰시코기 강아지 뽀구입니다. 인천 본가에서 아낌없는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있는 뽀구의 기품 있는 모습입니다. 사진 속 인천 본가 집 앞의 작은 공원의 이름은 뽀구랜드라고 하며, 뽀구가 올라가 있는 곳은 미끄럼틀, 럼프레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미끄럼틀을 실제로 아주 잘 탄다고 합니다. 사실 강아지의 실제 이름은 쿠퍼이고, 뽀구는 인터넷 상에서 사용하는 예명이라고 합니다. 쿠퍼라는 이름은, 혈통서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이 모두 양인 이름이길래 그냥 아무거나 '미쿵' 남자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. 제 생각엔 뽀구가 더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.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제가 강아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, 뽀구의 사진을 여러 장을 보내 곤혹을 겪었으나 그중에서 가장 알록달록하고 늠름한 사진으로 선택했습니다. 웰시코기의 쫘긋한 귀를 잘 살리지 못했으나, 나름 이들에 걸친 대작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